

#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출범

## 인구감소지역 지정범위 읍면동 확대 등 균형발전·상생협력 논의

전남도는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지난 22일 동부청사에서 열고, 도농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정영균 전남도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농복합시 상생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자리였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된 형태의 시다.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광양 4개 시가 해당된다. 그동안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심 정책에 따라 읍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생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농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처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4개 시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운영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의 읍면동 확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지정도 도농복합시 내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또한 전남도가 공모사업에 활용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지표가 시군 단위뿐만 적

용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낙후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는 가정 산정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도 추진 공모사업은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에서 확대·적용 하기로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위원들은 도의회와 시의회,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도농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성을 함께 담아주길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협의회에서 다루지는 안건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 사업 확대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염선호 기자

/염선호 기자

# 북구, 신관 건립 마무리... 26일부터 업무 개시

## 신관 건립 예산 300억 투입...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7,179㎡ 규모

건물 노후와 협소한 공간, 부서 분산 등 내외적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북구청사가 한층 쾌적해진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5개국 17부서가 신관에서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신관 건립 사업은 행정 수요 대비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본관과 여러 별관 등으로 분리된 복잡한 청사구조를 개선하고자 시행됐다.

그동안 북구의 분청 소속 부서들은 본관과 별관, 효죽1공영주차장, 4곳의 별도 건물 등 총 7개 업무공간으로 분산돼 있었다.

신관이 완공됨에 따라 신관, 본관, 효죽1공영주차장 등 3곳으로 청사가 압축되면서 비효율적인 청사 동선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관은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7,179㎡(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구내식당과 카페 등 편의 공간이 들어서고 2층부터 7층까지는 5개



국 17개 부서와 기록관, 재난안전상황실, 우수·산불모니터링실,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채워진다. 8층에는 발전기실과 전기실이 위치한다.

특히 신관 1층 로비와 카페 공간은 업무 시간 중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북구는 오는 24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6일 건축과 등 6개 부서, 2월 2일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 2월 9일 민생경제과 등 8개 부서가 차례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청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신관 건립이 안정하게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근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선 7기인 지난 2022년 마련한 '청사확충 기본 로드맵'을 바탕으로 향후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 청사확충 및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송현근 기자

# 서구,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대상자 모집

## 시설개선 최대 200만원, 홍보·마케팅 최대 1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월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3개월 또는 6개월 이상)하면서 필수 교육과정인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를 1회 이상 수강한 소상공인이다.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는 고객응대(CS), 마케팅 등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2월10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중 총 10회에 걸쳐 회당 2시간씩 서구 소상공인 경

영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경영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등 2개 분야로 나눠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안전·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업체 85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온라인·SNS 마케팅, 홍보 전단지 제작, 신문광고 등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업체 2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실무 역량 강화와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영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 남구, '동행카드' 상·하반기 총 80억원 발행

## 지역 화폐 발행액 전년 대비 50억원 증가

## 상반기 26일부터 발행, 구매처·가맹점 확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병연년 한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지역 화폐인 남구 동행카드를 80억원 규모로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남구 동행카드 발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5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남구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골목 경제에도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의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한 남구 동행카드 30억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한 점을 적극 반영했다.

올해 남구 동행카드는 연 2차례에 걸쳐 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행하며,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전인 9월 초순 즈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50만원권까지 3종류 발행된다.

지역 화폐 구매도 한결 수월해진다. 남구 동행카드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협의회 광주광역시 소재 모든 영업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소재 일부 영업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남구

동행카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관내 주민들은 오는 26일부터 상반기 남구 동행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지역 화폐로 물품을 구매시 소비자들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10% 할인 혜택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5% 할인까지 총 15%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남구 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크게 확대된다.

남구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를 대상으로 남구 동행카드 가맹점을 추가 모집 중이며, 현재 관내 3,573개 점포가 등록을 끝마친 상태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동행카드는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설계돼 있어서 지역 자본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